

가정의 달
선교주일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24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감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May 29, 12:30 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 민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출애굽기 10:7-28 타협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유동숙 집사, 박진성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3, *4절
살과 세상으로	* 찬 양 / 가서 제자 삼으라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골로새서 3:22-4:1

청지기의 자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5월은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이웃과 세상과 나누는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6월은 “상반기 결산”과 “재점점의 달”입니다. 2022년 후반기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새롭게 합니다

-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위해 기도합니다.
 - 금주는 **만남과 나눔의 주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 오순절**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믿음의 뿌리내리기**
 - 1) **기도운동**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 ▶ 5월의 사역 - 선교주일(30) 만남과 나눔 주간(5/30-6/5)
 - ▶ 교우동정 - 김훈태/신실 집사(자녀 졸업식 참석 차 보스톤 방문, 5/26-6/1)
- ♥S영 생애축하♥ 구 민(8) 구민우(16) 김진숙(17) 최내권(20)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윤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3.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4.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5.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사역 장소에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5/22	5/29	6/5	6/12
	최선윤집사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구은강집사
주일헌금위원	5/22	5/29	6/5	6/12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최선윤집사/박진성집사	
주일안내위원	5월		6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결코 우연이 아닌** / 출애굽기 8:20-32

어느 누구도 허튼 소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약속된 날짜와 때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지만, 바로는 기적을 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드리지 않는다.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이 완강했기 때문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리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깨닫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자. 때로는 겪고 있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속의 퍼즐 조각들로 분명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맞추어 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자.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이자.

타협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 출애굽기 10:7-28

여덟째 메뚜기 아홉째 흑암의 재앙

가진 것을 잃지 않고 지키려는 바로는 타협과 협상을 시도한다.

하지만, 한 걸음 씩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모세와 아론은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쫓겨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다.

바로와 이집트가 행복하도록 역사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자.

타협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 출애굽기 10:7-28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당연히 싸움보다는 흥정이 낫다. 그러나 만약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싸움은 물론이거니와 흥정도 옳지 않다. 하나님을 상대로 타협을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음뿐이다.

여덟 번째 재앙을 앞두고 바로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신하들은 바로에게 모세의 말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완강한 바로는 항복 대신 협상을 시도한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허락은 하겠지만 오직 어른 남자들만 나갈 수 있다고 조건을 내건다. 모세는 바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협상은 결렬되었다. 그 결과 메뚜기 떼가 우박에 상하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심판이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캄캄한 흑암이 삼일동안 온 이집트에 있었다. 태양뿐 아니라 달도 별도 전혀 빛을 발하지 않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이 흑암의 재앙으로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러서 타협을 시도한다. 바로는 한 발자국 더 물러선다.

바로는 계속하여 물러서고 있다. 파리떼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는 광야로 나가지 말고 이집트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고,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는 어른 남자들만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데려가도 좋다고 한다. 그러나 양과 소는 데려갈 수 없다고 다시 조건을 내건다. 마지막까지 타협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이만큼 양보를 했으니하나님도 이만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교만한 행위이다. 이 사실을 모른채 바로는 점점 더 파멸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흥정이나 타협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다.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타협하고 흥정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인 동시에 영혼(soul)을 지닌 영적인 존재(Spiritual being)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당연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이라 부릅니다.

육체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항상 그분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기다리며, 구하고, 찾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마쳐야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독특한 문화이자 영적인 무기중 하나로 통성기도가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한국인의 ‘한’(恨)이라는 정서가 만들어낸 것으로, 마치 광야의 울부짖음 같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울부짖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한을 토하듯 울부짖는 것에 익숙합니다. ‘제발억울하고 답답한 내 이야기를 좀 들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울부짖음을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울부짖음이 마친 후에는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고요하며, 가장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광야에서 듣기를 포기하거나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바로 ‘잠잠히’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요동치는 우리 내면의 음성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고요할 때, 가장 우리의 온몸에 힘을 뺄 때, 바로 이때가 우리의 영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한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광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골방입니다. 매일 머무는 곳, 매일 내가 지나는 곳,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 그곳에 나의 골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광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이든, 차 안이든,

사무실 책상이든, 버스 안이든, 지하철 안이든, 혹은 출근 전 들리는 새벽기도회이든, 우리는 어느 한 곳을 나만의 광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 앉을 때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30초 만이라도, 1분, 3분, 5분 만이라도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려는 노력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고 깊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 이진황, 하나님의 음성 듣기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그가 내게 가장 두려운 분이요 내가 그에게 가장 두려운 분이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원하리라.”

시편 91편 15절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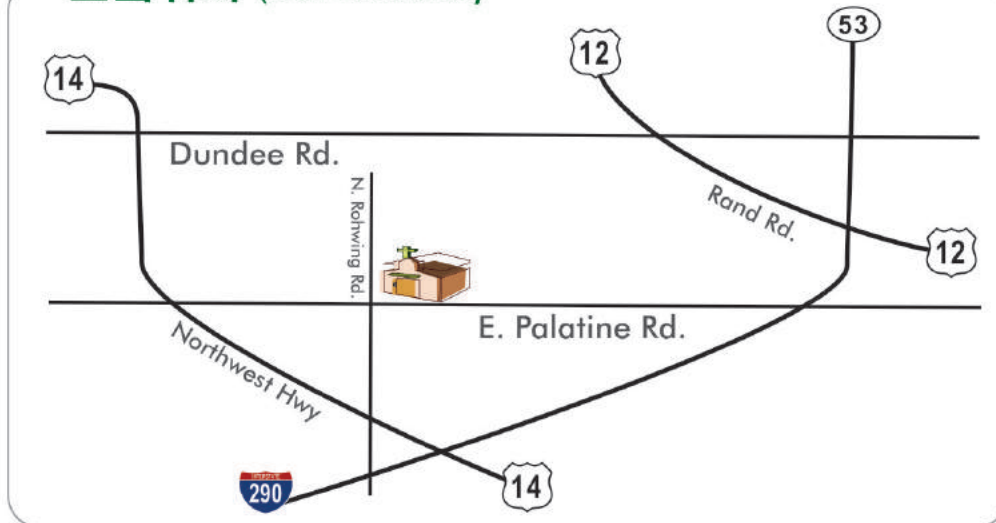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